

시론

쌀로 허무는 남북의 벽

북한의 경우로 문제를 해결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은 바로 한반도문제에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대한 문제일수록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해결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북한으로서는 다양한 문제인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중에 우리에게 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측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다양한 식량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자유를 알리는 것이고 우리의 도량을 알리는 계기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남음이 있어야 북한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

주는 마음 받는 마음

우리는 통일에 접근하는데 독일의 체험을 참고로 삼아야 하겠다. 우선 서독이 여유를 갖고 동독을 다각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욱이 어느날 갑자기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경제의 6배 규모인 서독경제가 휘청거렸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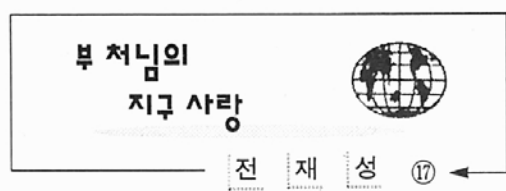
적어도 이 민족의 통일을 원한다면, 그것도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여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북한에 제공해 주겠다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 때에는 북한이 무슨 소리를 해도 크게 개의치 말아야 한다. 베푸는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베풀을 받는 사람은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그간에 쌓인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불신을 해소해야 대화도 순조로울 수 있다. 서로간의 협조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쌀제공이 남북간에 쌓여있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특히 불가에서는 이상향인 피안(彼岸)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여섯가지 행동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그것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正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여섯가지인데, 그중에서도 보시를 으뜸으로 친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보시를 해도 소문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파보(果報)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불가의 보시정신을 저울삼아, 허튼소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자주통일 가능성 열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쏟고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나라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통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나라들이 몇이나 될 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체 하면서도 제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심으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통일의 길 이의 다른 방도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바로 북한에 쌀제공으로 자주통일의 가능성마저 비치게 만들었으니 다행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변에서는 '불에서 꺼내 놓으니 보따리 달라'고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도 있고,



가뭄과 홍수

법화경의 약초유품(藥草喻品)에는 운우(雲雨)의 비유가 나온다. 먹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리어 흠족하면 모든 초목이나 숲이나 약초들의 차별적인 다양한 것들이 그들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에 고대 인도에는 운우가 내리면 초목들이 잘 자라라고, 초목들은 물을 보존했다가 적절히 기화시키거나 방출하는 자연의 순환구조가 온전했다. 율장에 의하면 당시에는 수신(樹神)에 대한 숭배가 있어 식생(植生)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아대륙은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다. 해마다 7~8월이면 홍수로 1만5천명이 실종, 2만여명이 고립되는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1987년 인도의 서북부지역은 최악의 가뭄사태로 가장 심각했던 라자스탄 지역은 1천2백만ha의 경지에 90% 가까이 곡물을 심을 수조차 없었고 가축들이 폐족을 당하였다. 한편 그 때, 방글라데시는 대홍수로 국토의 1/3이 침수되고 2천만명의 이재민과 1천4백여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홍수는 연중행사에 가까운 것이 되어 버렸다. 74년 홍수와 기아에서는 30만명이 사망했다. 히말라야를 수원으로 하는 갠지스강이 붕괴하는 이 지역은 해마다 침수와 가뭄이 교차된다.



◇우무분별한 삼림벌채는 가뭄과 홍수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재민이 생겨났으며, 그 직후에는 볼리비아와 페루에 1백만명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2백만명 이상이 재앙의 피해를 입었다. 개도국인 중국에서도 일례를 들어, 1981년 여름 양자강을 휩쓴 대홍수는 건국 이래 최대규모로 철도 도시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사망자 4천명, 가옥건조물과 파괴 50만호, 침수가옥 2백만호, 50만ha의 농경지 침수라는 재앙을 가져온 이래 가뭄과 홍수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는 가장 표면적인 원인은 수원(水源)지대의 삼림이 마구 벌채되어 우기에 보수력(保水力)을 잃은 삼림에서 물이 한꺼번에 넘쳐 흘러 홍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량의 토사가 흘러내려, 하천 바닥을 높여 많은 지역을 침수시키고, 한편 우기에 비가 적어지면 극도의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도처에서의 가뭄과 홍수의 악순환의 본질적인 원인은 선진제국의 복지사회를 위해 소위 가난한 나라의 원시림과 식생을 식민지화하여 탐욕스럽게 수탈하기 시작해 있으며, 또한 그 방향의 여러나라에서 금세기 최악의 수해와 산사태가 발생해서 1천명 이상이 사망, 실종되고 수십만명의

삼림 무분별 벌채가 원인

인도·아프리카·남미등 전세계 인명 피해 속출

인도아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83년 아프리카의 최악의 가뭄으로 3천5백만명이 식량위기에 직면했으며, 85년에는 비가와서 한 시름을 덜었지만 이디오피아, 모잠비크, 수단 등지에서도 커다란 홍수 피해를 겪었다. 남아메리카에서도 1982년 아마존강 상류가 범람하여 5천6백여명이 사망, 실종되었다. 그 해 3월과 6월에는 콜롬비아, 페루, 에쿠아도르, 볼리비아의 안데스지방의 여러나라에서 금세기 최악의 시름을 덜었지만 이디오피아, 모잠비크, 수단 등지에서도 커다란 홍수 피해를 겪었다.

신행수침



◇조선시대 목조건축물인 기림사 대적광전은 본당으로서 비로자나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나 혼자서도 잘해요'

무진법장사 여름불교학교

신나는 여름방학. 부모님 옆에서 어리광도 부리며 맘껏 뛰놀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 이렇게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더 짙은 부처님 동산에서 효를 배우고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며 친구를 사귀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무진법장사가 마련하는 여름불교학교는 학교성적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함양에 보다 큰 뜻을 둔다고 한다. 유치부나 국교생만 참가할 수 있어 아쉽긴 하지만 한여름 태양을 밟으며 부처님 미소를 배우

는 아이들의 함박웃음을 생각해 보라. 무엇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여름불교학교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 (02)932-2333

'천년古都의 숨결 느껴요'

신행연 경주로 문화기행

토함산에 자리잡아 멀리 바다 건너 불국정토를 내다보시는 석굴암 부처님과 함께 민족의 정기를 이어 온 천년고도 경주.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이 경주지역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제한된 연휴를 이용해 오는 15~17일 경주 남산·석굴암·감은사지·기림사등 15곳의 불교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이번 기행을 통해 살아 숨쉬는 우리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자. (02)587-6613

울 피서는 자비의 땀으로

호스피스 간병전문인 교육

바야흐로 산과 들로 더위를 피해 나가는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다. 이왕 즐기는 땀방울을 좀 더 보람되고 알차게 흘릴 방법은 없을까.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불자라면 말이다.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는 어두움이 있어도 전문적 지식이 없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불교 바라밀간병인협회(원장 효종)는 제2기 호스피스 간병전문인 교육을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울 여름을 소중히 '자비의 땀'으로 보내고자 하는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051)633-6413

'첫 발심이 바른 깨우침'

보광사 실천불교학교

초심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된다. 수많은 불자들의 기에 맞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는 보광사(주지 효림스님) 실천불교학교가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348) 942-7700

민족문화의 꽃 팔만대장경 보급

해인사 모조경판 제작 '학교에 보내기' 운동

해인사에 봉안중인 고려대장경 판은 국보 제32호로서 고려 목판 활자문화의 꽃이며 민족문화의 자랑이다. 그러나 전국의 학생들은 수확여행을 통해 잠시나마 경관을 접할 기회가 있으나 주말산(走馬看山)격의 구경이 되기 쉽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용 뿐만 아니라 국보문화 자료전시용, 인경(印經)실습용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모조경판(해인사에 보관중인 8만1천2백

58판의 경판중 가장 표본이 되는 경판 1판을 제작, 기증자를 통해 '학교에 경판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증신청의 접수는 장경연구소에서 하며 경판 1매의 기증가격은 15만원이다. 기증자가 직접 원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에 위탁할 경우 기증자가 선정하는 학교에 보내 준다. 경판보내기운동으로 발생하는 이 금액은 전액 연구소가 추진하는 대장경판의 보존화와 전산화 사업에 쓰인다. (0599)31-1023

있이 다르다. (051)557-2746

대로 배우니 또한 즐겁고

부산 정토법당 불교학교

공자 삼락중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다. 바쁜 일상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법당을 찾아 불법을 배울 시간적 여유가 없고 비록 여유가 있다해도 불법에 대한 체계적 학습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 정토법당이 이런 직장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천 불교학교'를 연다.

불교의 특징과 우주관, 세계관을 배우고 거기에 불교의 인생관과 사회관을 배우고 나면 몸과 마음은 어느새 정토세계에 닿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불법을 배운다는 것, 또 하나의 세계를 얻는 것과 무

정토로 가는 실법의 향연

실천적 불교사상 대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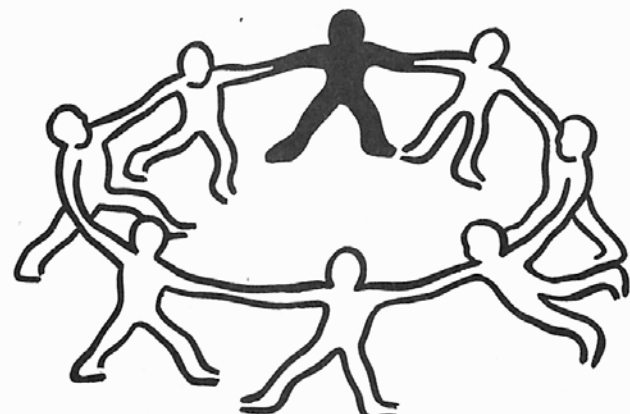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일까? '개인이 수행을 통하여 맑은 마음을 갖고 그러한 개인이 모여 좋은 벗을 이루며,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일구자는데 있다'고 정토불교대학생회는 말한다. 정토불교청년회가 불교근본교리의 실천적 사상을 배우고 인생관·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제14차 실천적 불교사상대강좌'를 개최한다.

법륜스님, 유수스님 등을 법사로 무아, 무상, 일체개고, 인연고, 중도, 육바라밀을 공부하는 이번 강좌는 새로운 길을 찾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개방된다. 강의는 7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02)379-1650

생활 속의 불교 31

남의 손으로 가려운 데를 긁는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친구가 볼 일이 있어 나무를 건너는데 덩달아 따라 나선다는 뜻이다. 얼핏 들으면 서로 거들어주는 우애를 강조한 말 같지만 실은 좃대없는 삶을 빚낸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이란 대부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꿈꿨던 여다보면 우리들의 일상엔 대체로 남이 생각해낸 대로 생각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산다. 남들이 큰 집에 살면 나도 큰 집에서 살아야 하고 남들이 고급차를 타면 나도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TV광고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선전하면 그런 줄로 알고 언론이 '이렇더라' 하면 철석 같이 믿는다. 자고 새면 '남들은 어떻게 하나? 남들은?'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운다. 서양의 어떤 철학자는 현대인의 이런 삶을 가리켜 '잠 삶을 잃어버린 허풍 인생'이라고 했다.



질 못한다.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발견해야 참으로 아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가려운 데를 긁을 때는 내 손으로 긁는 것이 가장 시원하다.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자기성찰(省察)을 말씀하셨다. 남의 거울에 비춰보지 말고 제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라(自心返照)고 하셨다.

나의 생각·느낌·인행의 모든 것. 심지어는 숨 쉬는 일까지도 비춰보라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거름 같은 인생. 남의 발뽀꿈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참다운 삶. 참나와 더불어 사는 삶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현대는 복잡다단한 시대이다. 따라서 세파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정보야 말로 불가피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어디서 무슨 일이 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쯤은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 적자생존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갖는다는 것과 외부의 영향에 따라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고 남이 한 것대로 따라 사는 것과는 인생의 의미부터가 다르다. 책따위를 따라 돌 것이냐, 나의 길을 갈 것이냐, 균중 심리에 휩쓸려 들쭉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우주의 중심임을 자처하며 살 것이냐는 정말로 판이한 삶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이렇더라' 하는 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진화엔 아무런 도움이 되

우신건축설계사무소
 소장 : 문근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3-13 새한빌딩
 전화·광주 525-3130 / 팩스 : 521-1845